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5	2	4	3	4	4	5	5	3
6	2	7	2	8	1	9	2	10	5
11	1	12	2	13	1	14	4	15	3
16	5	17	3	18	3	19	4	20	1

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부와 명성과 같은 세속적 가치의 추구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진리의 추구를 중시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에 관해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목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목자의 주장이다. 목자는 전쟁이 자국과 타국을 분별하는 사랑(別愛)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군사를 동원하는 공격 전쟁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혹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명료한 사고를 통해 욕구를 분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나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왕수인, 혹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앎과 행함은 본래 하나이며, 인간은 누구나 양치(良知)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주희는 하늘의 이치(天理)가 사람과 사물에 모두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앎을 지극히 하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왕수인과 주희는 공통적으로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벤담, 혹은 밀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양한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보았다. 한편 벤담과 밀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6. [출제의도]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하이데거, 혹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지닌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여 본래적 실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초월자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혹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으며,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된 사단(四德)을 확충할 때 인의예지라는 사덕(四德)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으며, 성현(聖賢)의 예법(禮法)을 배워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덕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닌 지나침의 악덕과 모자람의 악덕, 즉 두 악덕 사이의 적절함이라고 보았다.

9. [출제의도] 홉스와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홉스, 혹은 루소이다. 홉스는 인간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를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동학과 증산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학의 최제우, 혹은 증산교의 강일순이다. 동학은 무한한 존재인 한울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모든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를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증산교는 세상의 혼란이 인간의 아집과 기성 종교의 타락 때문이라고 보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온갖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황, 혹은 이이다. 이황은 기쁜만 아니라 이도 발원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다르다고 보았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원하고 이가 그것을 탄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고, 사단은 칠정의 일부이며 사단과 칠정의 발원하는 연원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악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악용하는 것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신의 섭리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플라톤과 모어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혹은 모어이다. 플라톤의 이상 사회는 선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담당하며 통치자와 방위자가 사유 재산을 갖지 않는 사회이다. 모어의 이상 사회는 소유와 생산에 있어 평등하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14. [출제의도]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슈페터, 혹은 심의 민주주의를 주장한 폴스이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하며, 시민에 의한 지배보다는 정치가의 지배를 강조하는 사회사상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하며, 공적 심의를 통해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사상이다.

15. [출제의도] 스미스, 마르크스,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미스, 혹은 마르크스, 혹은 민주 사회주의의 사상가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로 인하여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폭력 혁명을 통해서 사유 재산을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16.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자, 혹은 공자이다. 노자는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치(道)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통치자가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을 통해 문명의 발달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통치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악(禮樂)을 통한 다스림으로 인륜(人倫)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칸트와 홉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혹은 홉스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보았으며,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덕과 악덕은 도덕감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自主之權)을 부여하여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嗜好)를 지닌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욕구를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19. [출제의도]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중관 사상가인 용수, 혹은 유식 사상가인 세친이다. 중관 사상은 모든 현상은 자성(自性)이 없기 때문에 공(空)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中道)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유식 사상은 모든 현상이 인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자유 의지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